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DSME faces being left with drillships on its books after Valaris bankruptcy filing

대우조선이 건조중인 드릴십 2척의 발주처 ENSCO가 파산보호신청을 진행함에 따라 드릴십 인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보도됨. ENSCO는 2019년 8월, 2척의 드릴십에 대한 인도 기한을 각각 2년씩 연장하면서 final milestone payment 및 이자비용으로 총 3.13억달러를 대우조선해양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드릴십 2기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70%를 수취한 상태이며 인도가 취소되어도 해당 드릴십 2기는 재고자산으로 편입될 예정이기에 큰 risk는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 Total and Macquarie unveil world's largest floating wind plan off South Korea

프랑스의 슈퍼 메이저 Total사와 GIG(Green Investment Group of Macquarie)가 해상풍력 포트폴리오 개발을 위해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보도됨. 총 2.3GW규모이며 5개 프로젝트로 구성된 초기 포트폴리오를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GW달성 목표를 발표한 한국판 그린 뉴딜 계획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Upstream)

## Whiting Petroleum exits bankruptcy

북미 Shale업체인 Whiting Petroleum이 파산보호신청(Chapter11)을 마치고 파산의 위기를 벗어났다고 보도됨. 재무상태표 상 30억달러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공했다고 보도됨. Revolving credit facility를 통해 4.25억달러를 해결하는 한편 나머지 약 24억달러는 출자전환에 성공했다고 보도됨. (Upstream)

## 한국조선해양 현금 확보 집중, 대우조선해양 인수작업 한걸음 앞으로

한국조선해양이 현금 확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심사가 끝난 뒤 진행할 유상증자 참여 등 실무작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도됨. 1일 한국조선해양에 따르면 자회사 현대에너지솔루션 보유지분을 계속해서 매각하고 있다고 보도됨.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상장 직후 한국조선해양이 들고 있던 현대에너지솔루션 지분율은 71.43%였음. 올해 들어 5월, 7월, 8월 3차례 55만 주씩을 시간외 매매(블록딜)로 처분해 지분율은 이날 기준으로 56.7%까지 낮아졌다고 보도됨. (비즈니스포스트)

## 삼성중공업, 업계 최초 액화공정 기술 개발 성공

삼성중공업이 조선업계 최초로 대형 해양설비의 핵심인 '천연가스 액화공정'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보도됨. 이로써 삼성중공업은 그동안 원천 기술을 보유한 해외 선진 엔지니어링사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기술로 지금, 장비 선정 제약으로 인한 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 현대건설기계, 거창·함양 석산협회와 건설장비 공급협약 체결

현대건설기계는 지난 8월 27일 거창·함양지역 석산협회 소속사와 건설장비 공급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힘. 현대건설기계는 협약을 통해 거창·함양지역의 석산업체가 사용하는 굴착기, 휠로더를 협회 소속 업체에 전량 공급하고, 전담 서비스 인력과 주요부품을 사전 배치하는 등 한층 강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도됨. (국토일보)